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4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제 36호)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 (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4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 (제 36호)

목차



기상청장 기고

- 05 / 폭염 영향예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날씨 신호등
- 07 /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기상정보
- 09 /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이 더 강하게 발생할까?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1 / 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1 / 7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9 / 8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7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39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40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4년 8월 30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장은석(예보과), 임나영(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디자인 김기창(기후서비스과), 김병국(예보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남민우(관측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수정(예보과), 박장현(기획운영과), 박현진(기후서비스과), 박형진(예보과), 백은희(기획운영과)

심준수(관측과), 오숙영(예보과), 윤자민(기후서비스과), 이정섭(관측과), 이지훈(기후서비스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임나영(관측과), 장은석(예보과), 허자운(관측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을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폭염 영향예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날씨 신호등

국민재난안전포털,
폭염은 모든 자연재해 중
연간 국내 사망자
가장 많이 발생

글자 뜻 그대로 '매우 심한 더위'를 나타내는 폭염은 매년 여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그저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만이 아니라 폭염은 실제 많은 피해 사례를 낳고 있는데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폭염은 모든 자연재해 중 연간 국내 사망자를 가장 많이 발생시켰다.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전년보다 802% 증가한 2,818명이었으며 온열질환자의 약 30%가 65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약 80%가 야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은 우리가 해내기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폭염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재해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상청 역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폭염 영향예보이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의 피해 분야를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위험 수준을 신호등과 같이 관심(초록), 주의(노랑), 경고(주황), 위험(빨강)의 4단계로 나타내 직관적인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폭염 영향예보는 분야별 위험 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요령도 함께 제공한다. 같은 보건 분야에 속하더라도 민감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예보와 대응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가령 보건 분야 중 일반인에게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라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외출할 때 가벼운 옷차림 하기, 양산, 모자, 물병 지니기'의 대응요령이 전달된다.

하지만 폭염에 취약한 노인, 영유아 등
보건분야의 취약인에게는 위험 수준이
'주의' 단계로,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시원한 곳에서 쉬게 하고 상태를 점검
하기'의 정보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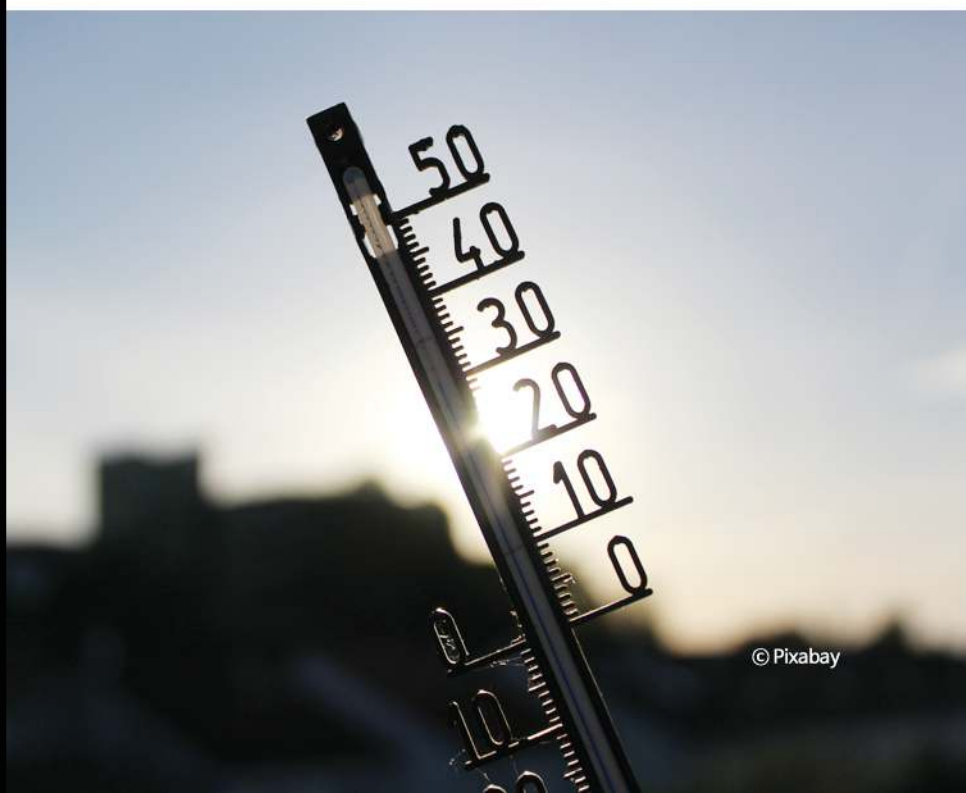
그리고 더욱 효과적인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영향예보는 일반인 기준 위험
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측될 때,
전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된다.

이러한 영향예보는 기상청 누리집이나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날씨알리미 앱을 이용하면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에 대한 폭염 영향예보를
푸시 알림으로 받아 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다.

기상청은 또 지난해부터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로 누리집과 소책자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해 불가피하게
무더위에 노출될 현장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폭염 대응을 위한 기본수칙은
'물, 그늘, 휴식'

폭염은 자연재해이지만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외출 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여름철 폭염 위험에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라며 폭염 대응을 위한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해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기상정보

‘상토주무(桑土綢繆)’란?

옛말에 ‘상토주무(桑土綢繆)’라는 말이 있다.

‘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를 얹어맨다’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해 피해를 막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 고사성어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도 재앙을 피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강수가 내리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여름 대전·세종·충남 지역에는 1069.9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최근 10년 여름철(6~8월) 평균 강수량인 623.0mm보다 172% 많은 양이다. 특히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에는 하루에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져 건물 붕괴와 주택 매몰 등의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번 장마기간(6월 29일~7월 16일) 동안 대전·세종·충남 지역에는 462.0mm 강수가 내렸고, 서천에는 1시간 동안 111.5mm(7월 10일)의 강수량이 내리는 등 강한 강수가 발생했다. 특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남은 여름철 동안 많은 양의 강수가 언제, 어디서든 내릴 수 있다. 그렇기에 집중호우를 비롯한 위험기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기상청은 이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6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10분마다 예보를 발표하고, 최대 4일까지에 대해 1시간 단위로 예보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집중호우와 같은 위험기상이 발생하면 기상 특보, 기상속보, 긴급방송요청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 날씨누리과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서도 기상정보와 함께 위성 자료와 레이더 영상 등의 이미지로 기상 상황과 집중호우 발생 지역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집중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도 안내 하는데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거주지역의 위험 상황과 재난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산사태 위험 지역, 지하 공간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특히 등산, 야영, 물놀이 등 야외 활동 중이라면 즉시 위험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장마철에 접어든 이후 대전 · 세종 · 충남 지역에는 많은 양의 강수가 내린 상황이다.

앞으로도 집중호우에 대한 가능성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토주무'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집중호우 피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이 되기를

예보, 기상특보 등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기상청의 노력과 더불어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을 실천하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집중호우 피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이 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이 더 강하게 발생할까?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는
점차 증가,
그 중 태풍 피해가 가장 커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는 대기과학이라는 학문의 범위를 넘어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그렇다면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상현상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할까? 이러한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 보았을 것이다. 이는 그 변화들이 우리의 생활과 사회의 모든 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 중 태풍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은 북서태평양상에 발생하는 중심 부근 최대풍속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으로, 많은 강수량과 강한 바람을 동반해 태풍이 통과한 지역에는 인적, 물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발생한 태풍의 경우 역대 재산 피해액 10순위 중 6개가 포함될 정도로 최근에는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이유를 지구온난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태풍의 관계에 대해, 수치모델 시뮬레이션과 관측자료 분석을 통한 국내·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가 2000년대 들어 초강력 태풍, 허리케인 등 열대저기압의 발생 개수와 지속시간,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보았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온도 상승을 동반하는데, 그로 인해 수증기 발생량이 늘어나 태풍에 공급되는 열에너지가 증가하고 태풍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측에 사용된 수치모델의 오차, 관측자료 수집의 한계 등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장기간 관측자료를 분석해 보면 태풍과 허리케인 등 열대저기압의 강도가 오히려 과거에 비해 약해지고 있다는 결론의 연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태풍은 예상치 못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다.

태풍은 강하든 약하든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

태풍 정보가 발표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즉시 기상청 날씨누리나 날씨
알리미 앱, 각종 방송 등을 통해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파악하고
대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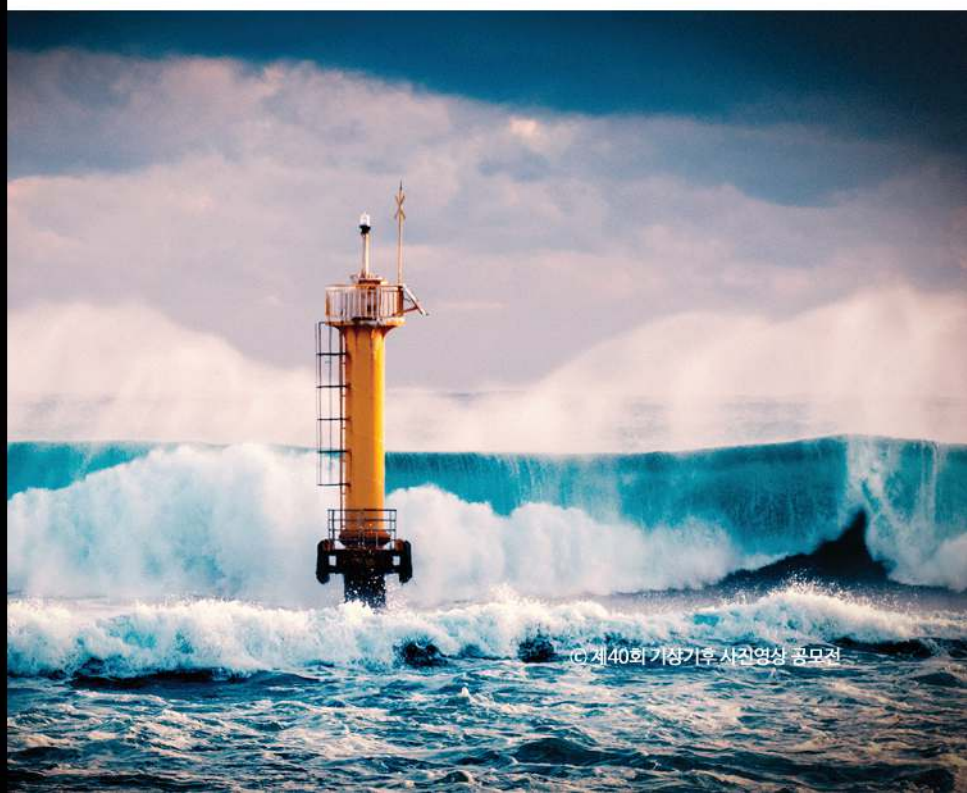
그다음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강풍과 침수에 대비해 건물과 시설물
등에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비상용품
준비해 재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주변의
어르신과 어린이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시대피방법을 전달해
나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것이다.

기상청의 태풍 예측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점점 더 발전 중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예측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은 아직 도전 과제로 남아 있지만, 기상청의
태풍 예측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시대, 기상청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1-20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4.6.1.~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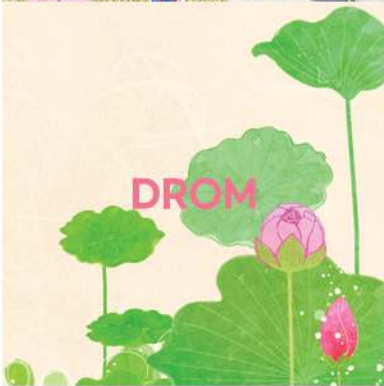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 위험성평가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곳곳의 잠재된 유해·위험성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을 약 2개월 동안 실시하였다. 총 23건에 대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활동을 실시하였다. 주요 개선내용은 청사 옥상 바닥 넘어짐 방지를 위한 매트와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넘어짐, 감전, 부딪힘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2024.6.4.

호국보훈의 달 현충원 묘역 정비 사회공헌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6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 묘역 정비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활동을 희망한 12명의 직원이 아침 일찍 현충원으로 출발하여, 참배를 하고 111묘역과 112묘역을 정비 하였다. 묘비를 닦는 작은 활동이지만, 이 활동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2024.6.4.

2024년 상반기 「족집게 예보관」 선정

대전지방기상청은 예보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족집게 예보관'을 선정하였다. 예·특보생산팀(4개팀)을 대상으로 반기별 예·특보 운영평가, 기상특보 발표 건수, 예보관련 경진대회 참가 등 여러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하고 포상을 실시하였다.



2024.6.5.

2024년 금강유역 홍수 안전 실무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 대비를 위해 금강유역 홍수 안전 실무협의회를 6월 5일 수요일에 개최하였다. 4개 물관리 기관과 전주, 청주기상지청이 참여하였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홍수기 대응능력 강화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수문기상정보시스템 개선내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및 운영 방법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결과 6월 14일부터 여름방재 종료일까지 SNS 소통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기상특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신속한 정보전달과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대비하도록 하였다.



2024.6.5.

2024년 찾아오는 문화교실 2차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찾아오는 문화교실 2차로 향수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감정 오일을 통해 개인의 감정 상태를 알아보고 치유하는 아로마 테라피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활력, 숙면, 집중 등 나에게 필요한 아로마 테라피 롤온과 꽃, 과일 등 다양한 향을 직접 블렌딩한 나만의 향수를 만들었다. 주변을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먼저는 나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대전지방기상청 직원들이 되길 바란다.



2024.6.10.

2024년도 상반기 관측업무 점검 및 기술지도

대전지방기상청은 2024년도 상반기 관측업무 점검 및 기술지도를 관측정책과와 수행하였다. 기상관측장비의 작동여부와 유지·보수 상태, 관리 및 운영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또한 관측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관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개선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관측업무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대전지역의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4.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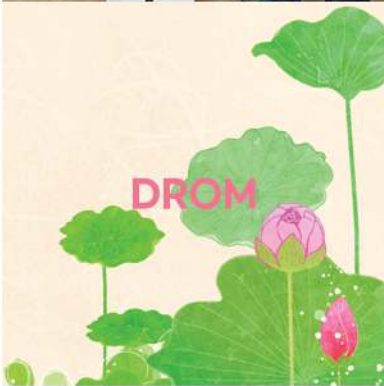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 해양기상정보 활용 초청 세미나

대전지방기상청은 해양기상정보포털의 적극적 활용과 스마트 해양기상 시스템을 통한 해양위험기상 대응력 향상을 위해 6월 13일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기상 정보활용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양기상 정보를 지도 위에 그림으로 표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해양기상 정보포털의 만족도를 높이고 스마트해양기상시스템의 다양한 메뉴와 표류예측시스템 등 활용법을 숙지하여 여름철 위험기상대비 해양안전역량을 강화하였다.



2024.6.20.

기상기후데이터 융합활용 세미나 및 소통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기상기업,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사)한국기상산업협회 등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는 관·학·산 업계 관계자를 초청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활용세미나와 함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실적과 창업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를 진행하고, 기상기업의 고충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현장의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기상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24.6.26.

2024년도 상반기 「우수기상 관측자」 선정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측업무 담당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고품질 기상관측자료 생산을 위해 상반기 우수기상관측자를 선정하였다.

평가대상은 '23년 12월부터 '24년 5월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한 대전청 관측과 및 홍성기상대 현업 근무자로, 지상관측 전문 입력률과 일기상통계표 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예보의 근간이 되는 기상관측자료의 정확하고 끊임 없는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관측장소 지형특성 분석을 위한 입체영상 서비스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지점의 지형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여 관측자료 분석역량 및 예보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측장소의 입체영상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2024.6.28.

관측장소 입체영상서비스 정규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관측장소에 대한 환경 특성 파악과 지역별 지형효과 분석을 위해 상공에서 기상드론으로 촬영한 360°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하는 입체영상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서비스지점을 기존 10지점에서 18지점으로 확대하고, 지형효과 분석 지원을 위한 3D 입체지도 제공 및 웹페이지 가독성 향상 등 개선과정을 거쳐 정규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개선운영을 통해 기상현상의 심도 깊은 분석을 지원하고,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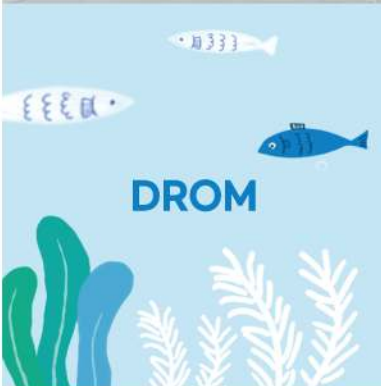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제2기 서해안 기후카페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심 많은 국민 9명을 선발하여 제2기 서해안 기후카페를 운영하였다. 센터 소개와 교육을 포함한 오리엔테이션(7월)을 시작으로, 서천 생태원 견학(8월), 가을음악회(9월), 환경 정화활동(10월) 등 5개월 간 센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활동 후기를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함으로써 충남권 기후변화 과학문화 대중화에 앞장선다. 11월 기후변화 강연에서 활동 소감 발표를 끝으로 제2기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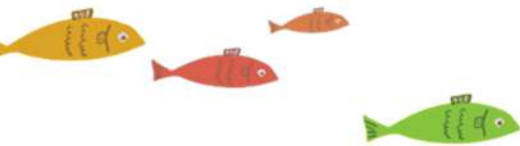


2024.7.10.

장동언 기상청장 논산 호우 재해지역 현장 방문



장동언 기상청장은 취임 후 첫 번째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논산지역의 재해현장을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과 함께 방문했다. 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논산 지역은 7월 9일 18시부터 10일 09시까지 누적강수량 223.5mm의 비가 내렸고, 이날 일최대 60분 최대강수량 90.0mm가 짧은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재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장은 피해현장을 둘러보며 효율적인 방재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상이**

우리가 오늘 모인 건 기후변화 때문에 열이 나고 아픈 지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2024.7.19.**2024년 영유아 대상 기후변화과학 콘텐츠 제작**

대전지방기상청은 생애주기별 기후변화과학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영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대전지방기상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기상이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캐릭터들이 기후변화로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 저탄소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의 '지구의 이름으로, 기후변화를 막아줘' 영상은 미취학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과 기후위기 대응 증진에 기여하였다.





2024.7.22.

기후위기 폭염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증가에 따라 폭염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내 기후위기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손선풍기, 자외선 차단모자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소통·협업 추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지속 및 확대할 예정이다.



2024.7.23.~8.30.

2024년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2024년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의 주니어닥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에어컨의 1℃, 지구의 1.5℃, 북극은?' 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과학에 초점을 맞춘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소외지역 초청 특별 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되어 미래세대 기상·기후 인재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비대면 프로그램의 운영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한 기후변화 이해확산 교육에 이바지하였다.



2024.7.25.

폭염 피해 예방 ‘해피해피 캠페인’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폭염 피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폭염 발생 시 대응요령 확산을 위해 2024년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단일 기상현상으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폭염에 대해 국민 소통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인 대전연탄은행과함께 대전광역시 가양동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수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으로 폭염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올여름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길 기대한다.



2024.7.26.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홍보 동영상 제작

대전지방기상청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를 위해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SNS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관계기관 전광판 게시규격에 맞춘 20초, 30초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앞으로 게시 가능한 다양한 채널에서 송출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관과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7.31.~8.12.

온열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한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물품(쿨토시, 부채, 생수 등)을 배부하고 행동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전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종합복지관을 활용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공주시, 논산시, 태안군, 예산군, 서천군 등 충청남도 5개 시·군의 마을에도 대전지방기상청장, 예보과장 등 약 10명의 직원이 피해 예방 물품을 나눠주었다.

2024.8.5.

2024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용역 사업 중간보고회 및 정보사용자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논산시의 대기오염 및 악취 민원 등에 대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하여 논산시청 담당자 및 한국환경연구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충남연구원의 환경 전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제2차 정보사용자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향 기상정보 서비스 개발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발 현안에 대한 수요기관 및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2024.8.6~8.21.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슬기로운 방학생활」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방학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방학생활」을 운영하였다. 특히 8월 6일과 9일은 홍성 DMO(지역관광추진조직)의 '어서와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기후변화 탐험존' 특별 전시해설과 친환경 세정제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 하였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배움으로써 기후변화과학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8.6.

2024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소속직원들의 올바르고 신속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하여,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폐소생술은 인공적인 혈액순환을 만들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는 것이 원리라고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번 교육에서 훈련한 것이 응급 시 가족과 주변 동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24.8.12.

충남북부앞바다 특정관리해역 분리 관련 정책협의

대전지방기상청은 해상특보 분리 운영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부서(예보정책과)와 정책 협의를 진행하였다. 충남북부앞바다 중 특정관리해역(가로림만 · 당진 평수구역) 내 기상상황 차이로 어민 입 · 출입 통제에 따른 민원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기상특성 분석 결과를 수행하고, 정책 관련 부서인 예보정책과와 추진사항을 공유하면서 분리 운영에 대한 기상학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4.8.14.

어르신 대상 기후변화과학 교육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과학 교육의 전 연령 확대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노인 복지관과 협업하여 일자리 어르신 대상 기후변화과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여 명의 일자리 어르신들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기후변화의 정의, 현황, 원인, 대응 노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자리 어르신들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와 기상재해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대국민 기후변화과학 인식 확산에도 노력하겠다.



2024.8.23.

고품질 기상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기술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 생산을 위하여 제2차 관측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봄철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여름철 주요 기상현상인 폭염과 호우에 대한 관측업무 담당자의 관측 주안점과 주요 모니터링 요소에 대한 업무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또한, 역사 자료인 일기상통계표의 품질 강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예보의 기본이 되는 관측자료의 생산과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4.8.26.

우수 관측인력 양성을 위한 관측업무 역량 향상 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8월 26일 대전지방기상청으로 전입한 직원을 대상으로 관측업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관측과의 주요업무 및 직무교육 소개와 관측업무 담당자의 업무 노하우 공유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있는 관측인력을 양성하고, 공백없는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8.

2024년도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에 따른 체감형 폭염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2024년 폭염의 정확한 예측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상관측 차량을 활용한 특별 관측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고정형 기상 관측소 자료만으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동성이 뛰어난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 운동장, 농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기온, 습도, 풍속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체감 온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집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별 맞춤형 기상 정보를 생산하여 폭염 취약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폭염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극값 및 계절관측

6
JUNE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6. 19. 금산 1위 36.7℃, 대전 1위 36.6℃, 부여 1위 35.8℃, 서산 1위 35.2℃
세종 1위 35.1℃, 홍성 1위 34.3℃, 보령 1위 32.6℃, 천안 2위 34.7℃

7
JULY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7.26. 보령 3위 27.3℃
7.28. 서산 1위 27.1℃, 보령 2위 27.6℃, 세종 2위 26.2℃, 홍성 3위 26.8℃
7.29. 홍성 2위 26.8℃, 서산 4위 26.4℃

1시간 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7.10. 금산 1위 84.1mm, 부여 3위 65.1mm, 홍성 4위 44.3mm
7.16. 보령 5위 53.4mm
7.17. 천안 3위 56.4mm
7.18. 서산 2위 81.1mm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7.10. 금산 2위 192.8mm
7.18. 서산 153.0mm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8. 2. 금산 4위 30.1℃, 세종 4위 29.6℃

8.13. 보령 4위 30.7℃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8. 1. 홍성 1위 27.5℃, 서산 1위 26.9℃, 보령 5위 27.4℃

8. 2. 서산 1위 27.1℃, 세종 1위 26.8℃, 홍성 2위 27.4℃, 보령 4위 27.5℃
천안 4위 26.1℃

8. 3. 금산 1위 26.4℃, 부여 2위 26.7℃, 세종 2위 26.6℃

8. 4. 금산 5위 25.9℃

8.14. 서산 4위 26.7℃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8.13. 보령 1위 36.4℃

10분간 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8. 5. 금산 4위 16.6mm

동물계절

매미 초성 6.12.(작년대비 7일 빠름, 평년대비 27일 빠름)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4. 8.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2. AWS(40소)

정림(378), 오월도(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웅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